

주간기도정보

2024. 11. 1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라”

한국세계선교회, ‘뉴 타깃 2030’ 선포...한국교회 선교계의 청사진 나왔다

‘비서구권’ ‘이주민’ ‘다음세대’ ‘디지털’ 4가지 선교영역에서 실천로드맵 제시



앞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집중하는 ‘다중심 선교’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2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앞마당 선교’도 활성화된다. 젊은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제시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접목한 디지털 융합 선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세계선교회협의회(KWMA)는 13일 부산에서 열린 해운대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뉴 타깃(New Target)2030’ 비전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출신의 현장 선교사들이 함께 달성해 나갈 해외선교 청사진을 공개했다. ‘뉴 타깃 2030’ 비전은 크게 글로벌 사우스와 이주민 사역, 미래세대, 디지털 선교를 각각 키워드로 하는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강대흥 사무총장은 “이번 비전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선교계가 미래 선교의 방향성을 논의해온 과정의 산물이다. 선교 전문가들과의 협의로 탄생한 실천로드맵을 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비서구 교회들과 협력하고, 쇠퇴하고 있는 서구 교회를 대신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포럼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를 타깃으로 한 현지인 중심의 선교가 강조됐다. 박형진 교수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글로벌 사우스에 분포돼 있다”며 “자립·자치·자전의 원칙에 따라 현지 교회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정신을 갖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손승호 정책위원은 “국내 이주민 중 상당수가 돼 버린 미전도 종족 이주민은 선교 현장이자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역 대상”이라며 “이주민을 훈련시켜 역파송하는 선교를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는 종교·언어·신분별 맞춤형 선교 매뉴얼 제공, 이주민 성도 보호를 위한 ‘선교지 이단 대책위’ 연대 강화, 귀국 선교사의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 재배치 등이다.

선교계 고령화에 따른 다음세대 선교사 참여·발굴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KWM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030세대 선교사 비율은 전체 선교사의 8% 미만이며, 교회 내 30대 미만 성도 비율은 11% 미만이다. 반면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6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태구 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대표는 “다음세대 선교에서는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회와 선교단체간 협력과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환경이 익숙한 선교사 자녀(MK)나 한인 디아스포라 자녀들(TCK)을 글로벌 선교사역자로 양성키로 했다. 선교단체와 각 교단 선교부가 ‘청년 인턴 선교사’ 제도를 활성화해 선교 참여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디지털 선교 또한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정용구 협동총무는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디지털 선교 교육과 훈련의 디지털화, 선교 행정 및 사역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선교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디지털 기술과 AI 등 최신 트렌드를 선교에 적용하는 사례와 유용한 도구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23-24)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하나님,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지금까지 선교에 순종해 온 걸음에 안주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어 미래 선교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일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방법과 기회로 선교완성의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자 달려갔던 사도바울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된 비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열방과 함께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함경북도 무장 탈영병 발생으로 국경 지역 집중 단속

지방 공업공장 건설 투입된 군인들도 열악한 환경에 탈영



북한에서 러시아 파병으로 군 내부에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함경북도 김책 지역의 군부대에서 4명의 무장 군인들이 탈영을 감행,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프리덤조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 지난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탈영병은 부대 보위지도원을 살해하고 부대를 빠져나온 후 철도의 화물열차를 이용해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가안전보위성 국경경비총국과 인민군 9군단 보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국경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매체의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보위측 관계자가 “이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해안으로 이동해 소형 선박을 이용해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 내부에서 개인의 탈영은 종종 발생하지만, 무장한 다수가 보위부 지휘관을 공격한 후 탈출을 감행한 경우는 드물어, 이번 사건으로 북한 당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까지 탈영병들이 부대 보위부를 습격하고 지휘관을 살해한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군부의 러시아 파병 상황이 군 내부에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당국은 탈영병들이 국경을 넘어 탈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안북도의 지방 공업공장 건설에 투입된 군인들도 탈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평안북도 도내에서 추진되는 지방 공업공장 건설에 투하된 군인들이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탈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 공업공장 건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제시하고 각별히 챙기는 사업인 만큼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건설의 속도를 보장하느라 혹독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 부상이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에 몰리다 감염이 발생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잦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더욱이 건설 노동 자체가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라 군관들 속에서도 불만이 나올 정도니, 일선의 일반 군인들은 단순히 불만에 그치지 않고 탈영을 감행하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지난달 17일 평안북도 지방 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된 한 인민군 공병부대가 탈영병들을 잡아들여 탈영 이유를 묻자 대부분이 절망감을 느껴 탈영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붙잡혀 온 19세 탈영병은 “지방 공장 건설을 10년간 한다는 게 방침인데, 그러면 내가 제대될 때까지 매해 건설만 하다가 제대될 것 아닌가. 우선 너무 배가 고프다. 거기에다가 노동강도가 너무 세서 끔찍하게 힘들다. 그래서 생활제대(불명예제대)되려고 도망친 것이다. 생활제대 시켜달라”며 울며불며 사정했다(출처: 북음기도신문, 데일리NK 종합).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29-31)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시편 19:2-4)

하나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불만으로 지휘관을 죽이고 탈출을 감행하며, 심각한 이 나라의 노역과 학대로 인해 살아가는 본능만 남아버린 북한 군인을 돌봐주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며 탐심에 눈이 멀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김정은 정권을 꾸짖어주시고 절망감에 울부짖는 백성에게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년의 때를 지나 장정에 이르도록 고된 노동과 굶주림에 피곤하며 넘어진 이들에게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주의 말씀을 심령 깊이 새겨주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고난 중에 소망을 노래하는 신부 된 교회로 회복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리라”

수능 이후 수험생들에게 더 큰 관심을!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허무함을 신앙을 통해 바로잡고 살도록



아침 일찍부터 저녁이 다 되도록 이어진 수능시험을 치르고 교문을 나선 수험생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다. 서울 사랑의교회 광장에 벌써부터 환하게 불을 밝힌 성탄 트리가 수험생들을 맞이했고, 양옆으로 하루 종일 문제를 푸느라 지쳐 있을 학생들을 위한 푸드존이 준비돼 있었다.

광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은 간식을 하나씩 입에 물고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삼삼오오 모여 웃음을 띤 얼굴로 자유를 만끽했다. 이날 자리는 사랑의교회의 다음세대 건초더미 기도운동인 ‘더 라이트’와 학교기도불씨운동 ‘더 웨이브’를 비롯

해 스탠드그라운드, 더드림, 엔젠, 인천검단 연합 등이 함께 마련한 ‘제3차 학교 & 캠퍼스 기도불씨운동’이었다.

수능 당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 이 날 집회에는 무려 7,200여 명의 청소년·청년들이 참석해 예배당을 빼곡히 채웠다. 이중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도 상당수였다. 3년째 수능 당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수험생들이 세상의 가치관인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회복해, 이후에 있을 모든 대입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역시 수능을 마치자마자 교회로 향했던 이다에 양은 “시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지난 1년간, 길게는 초등학교 때 부터 12년 동안 공부해온 것들이 수능이라는 한 번의 시험에 다 끝났다는 게 조금은 허무한 생각이 든다”며 “그 공허한 마음을 예배의 감격으로 채우기 위해 달려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하영 양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덕분이었다. 수능 볼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 모든 생각이나 손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해 예배하러 왔다”면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것처럼, 대학생이 되어서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연합집회가 잇따랐다. 대전에서는 수능 당일 새로 남교회 주최로 새로남체육관에서 수험생과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집회 ‘유스페스티벌’이 진행됐고, 대구도 같은 날 다음세대를 위한 연합집회 ‘런(RUN) 2024’가 대구동신교회에서 열려 수험생들에게 비전을 심었다.

또한 수능 후 첫 주말인 16일엔 부산과 광주에서 집회가 이어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청년 네트워크 더원미니스트리는 수영로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다.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이 전국을 돌며 개최하는 연합집회 ‘웨이크업’은 광주 동명교회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수험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을 초대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수능을 마치자마자 예배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수험생들을 위로와 격려의 이유도 있겠지만, 시험 이후 흔들리기 쉬운 신앙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까닭도 있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진리를 통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출처: 기독교신문 종합).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민수기 6:22-25)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에베소서 2:20-22)

하나님, 오랜 시간 준비한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느낄 해방감과 허무함에 방향하지 않도록 교회와 단체의 섬김으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얼굴을 자녀세대에 비추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진리 안에서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로서의 부르심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모퉁잇돌 되신 예수로 인하여 서로 연결된 교회와 부모세대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십시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드린 다음세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온 열방에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